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내년 방영 소식에 '들쭉'
김은숙 작가, 시대극 도전
한류스타 이병헌 효과 기대

민고 보는 두 사람이 만났다. 그 시너지는 얼마나 될까.
김은숙(44) 작가와 배우 이병헌(47)이 손을 잡았다. 소식이 24일 전해지면서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내년 상반기 방송 예정인 '미스터 션샤인'은 '태양의 후예'와 '도깨비'로 지난해와 올해 2년 연속 안방극장을 뒤흔든 김 작가와 이응복 PD가 다시 손잡고 만드는 작품이다.
김 작가와 이 PD의 차기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관심이 높는데, '거물' 한류스타 이병헌이 가세하면서 더욱 덩치가 커졌다.
'미스터 션샤인'은 1871년 미국 군함이 강화도로 쳐들어온 신미양요 때 미국 군함에 승선해 미국으로 간 한 소년의 이야기다. 현대극만 쓰던 김 작가는 '도깨비'로 사극과 판타지를 결합한 데 이어, 이번에는 시대극에 도전한다.
앞서 김 작가는 이 드라마에 대해 "주인공 소년이 미국 군인 신분으로, (훗날) 자신을 버린 조국인 조선으로 와 주둔하며 벌어지는 일"이라며 "주인공은 조선의 정신적 지주인 양반가문의 '애기씨'를 만나 사랑을 나눈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이같은 설정으로 인해 주인공으로는 "영어를 할 줄 아는 배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인공 소년이 미국에 갔다가 30여년이 흐른 뒤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 배우의 연령은 최소 30대 후반에서 40대가 적정했다.
이로 인해 할리우드 영화에 잇따라 출연하며 영어권 활동을 해온 한류스타 이병헌이 주인공으로 유력하지 않느냐는 관측이 처음부터 나왔다. 다만, 영화에 주력해온 이병헌이 과연 드라마를 할 것인가의 문이었다.
하지만 이병헌은 '대세'인 김 작가와 손잡고 9년 만의 안방극장 복귀를 결정했다. 그의 드라마 출연은 2009년 KBS 2TV '아이리스' 이후 처음이다.
1991년 KBS 공채 14기 탤런트로 연예계에 데뷔한 이병헌은 '내일은 사랑'을 시작으로 '폴리스' '사랑의 향기' '아스팔트 사나이' '아름다운 그녀' '해피투게더' '아름다운 날들' 등을 거치며 1990년대 최고의 TV 스타로 등극했다.
그는 2003년 '올인'이 시청률 49.5%(TNS미디어 코리아)를 기록하는 등 아시아를 뒤흔드는 대박을 치면서 한류스타로 등극했고, 이를 전후로는 영화에 전념하면서 할리우드까지 진출해 성공했다.

'아이리스'는 그가 '올인' 이후 6년 만에 출연한 드라마로, 제작비 100억여 원이 투입된 첩보 액션 블록버스터였다. '아이리스' 역시 39.9%(닐슨코리아)라는 높은 시청률로 종영하며 큰 인기를 누렸다.
이병헌을 다시 9년 만에 드라마로 소환한 '미스터 션샤인'도 시대극이자, 의병 이야기라는 점에서 규모가 큰 작품이다. 제작비가 150억~160억 원이었던 '도깨비'와 비견되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미스터 션샤인'의 제작사 화앤픽처스의 윤하림 대표는 "이번 작품은 준비할 것이 너무 많고, 사전제작은 아니지만 필러티 있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 촬영에 오랜 시간 공을 들여 해야 하는 작품"이라고 설명했다.
현빈, 이민호, 송중기, 공유 등과 작업하면서 한동안 기존 스타를 몇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마법'을 발휘했던 김 작가가 이번에는 '빅 맨' 이병헌과 손잡은 만큼 그 시너지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변신과 진화에 성공하며 쾌속 질주 중인 김은숙 작가와 모든 연기마다 감탄을 자아내는 특급스타 이병헌의 결합은 과연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연합뉴스

초아 "결혼때문에 탈퇴한 것 아냐"

AOA 탈퇴 후 열애설 논란 곤혹

결그룹 AOA의 탈퇴를 선언한 초아(27·본명 박초아·사진)가 22일 "저는 임신을 하지도 않았고 낙태도 하지 않았고 결혼하기 위해 탈퇴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지난 5월 초아가 최근 열애설이 낳던 30대 기업가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고 보도했다.
초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탈퇴는 정말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힘든 결정인데, 다른 문제가 연관 지어지지 않았으면 한다"며 열애설이 재점화한 것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세 자매가 여행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마치 단둘이 간 커플 여행인 것처럼 기사가 낳지만, 자매끼리 처음 가본 해외여행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어로 예약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 3년 전부터 친하게 지낸 지인에게 이것저것 묻게 됐다"며 "지인이 일정이 겹치는 날에는 가이드해주고 돌아오는 길에 배웅해줬던 건데 그때 돌만 있는 사진이 찍힌 것 같다"고 해명했다.
초아는 "탈퇴에 대한 고민은 오래전부터



회사에 털어놨었다.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도 대표님의 동의를 구하고 의견을 반영해 쓴 것"이라며 "제 탈퇴 이후 또다시 불거진 논란에 멤버들이 피해를 입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는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본인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추후 거취를 결정할 예정이다. 탈퇴 여부는 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거친 뒤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겠다"며 "더 이상의 억측과 오해가 없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듀스' 이현도, 13년 만에 새 앨범

후배들과 협업 프로젝트 눈길

1990년대 남성듀오 듀스 출신인 이현도(사진)가 후배 뮤지션들과 새로운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소속사 D.O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현도는 협업 프로젝트의 첫 곡으로 래퍼 로꼬가 참여한 싱글 '흘러내려'(Falling Down)를 공개했다.
그가 자신의 음반을 내는 것은 13년 만이다. 그는 2004년 '더 뉴 클래식...앤드 유 돈't 스톱'(The New Classic...And You Don't Stop)이란 타이틀로 후배 래퍼들이 대거 참여한 앨범을 선보인 뒤 프로듀서로 활약했다



'흘러내려'는 이현도가 만든 비트에 로꼬의 랩, 감성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진 곡으로 아픈 사랑의 애뜻함이 담겼다. 이현도는 올해 이 프로젝트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6일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방송뉴스 45 기본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그레이트 지리산 스페셜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50 UHD 한국의 유산	00 살림하는남자들 (재)	50 빛날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12	00 쌤. 마이웨이 (재)	00 MBC 정오 뉴스 20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링 55 KBC특집 파워인터뷰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 빛고을 행복아카데미 (재)		10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대 2 55 파워배틀 와치카 (재)	35 위대한 유산 55 닥터 365
2	50 콘서트 필 (재)	00 KBS 뉴스타임 10 사람과 사람들(재)	25 똑? 똑! 키즈스쿨 55 내친구 마카다	00 뉴스브리핑
3	30 공감다큐. 사람(재) 50 팔도발상 스페셜(재)	00 자동차부책상 위기 2 30 TV유치원	15 별별머느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MBC 뉴스M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5 30 타들어 가는 땅, 가뭄 해결의 방법은?	00 VJ 특공대 (재)	00 MBC이브닝 뉴스	00 SBS 오 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엽기적인 그녀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리리랏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불꽃 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재보자들	55 별별머느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눈	
10	00 가요무대	00 쌤. 마이웨이	00 파수꾼	00 엽기적인 그녀
11	00 KBS 뉴스라인 40 월요기획	10 대한민국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초인가족 2017
12	3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35 비바 K리그	10 MBC 뉴스24 3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45 스포츠특선	20 나이트라인 50 고향견문록 스페셜

EBS1			
05:00 영초보 영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5:00 요술 상자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한국에 없는 부자들 찾아서 -역안정자, 도시를 바꾸자>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한강저편과 오이 다시(다)재무장>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가 셋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코코콩 3	20:50 세계대기 여행 <창사특집-생명의 길 테스로드 불을 품은 땅 다나킴>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대기여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마루의 어드벤처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한강저편과 오이 다시(다)재무장>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콩(재) 16:45 당동당 유치원 1~2(재) 17:15 얼마 깨무리 17:30 플라워링 하트(재)	21:30 한국기행 <발상야의 오지 -김어아 재, 오지>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핑크 08:00 당동당 유치원 1~2 08:30 꼬마버스 타요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1:20 세계대기여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특집기 -한국에 신다 12:40 평등채널(재) 12:45 과학 다큐 비온드 (재) 13:40 얼마를 찾지마(재)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7:30 당동당 유치원 1~2(재) 17:45 호기심나라 오기도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파이아로보 19:30 EBS 뉴스	21:50 EBS 다크 프라임 <가죽-위대한 동행> 22:45 엄마를 찾지마 23:35 까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24:30 세상의 드라마 (차일드후즈 엔드 2부-기만)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6일(음 윤5월 3일 甲申)	
	48년생 행면에 맞아야 무리가 따르지 않을 것이다. 60년생 강도에 따라 관가롭나게 되어 있다. 72년생 상당한 거품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 84년생 기가 막힌 인연을 가진 이와 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7, 62		42년생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길흉이 좌우될 것이다. 54년생 차분하게 판단해도 된다. 66년생 비밀은 끝까지 유지하여 어떤 후유증이 없다. 78년생 진행 방향을 제시하는 이가 있을 수 다. 90년생 변화를 시도해 보자. 행운의 숫자 : 36, 82
	49년생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세에 몰릴 수도 있다. 61년생 사실 있는 그대로의 현태를 냉철히 바라보자. 73년생 길지로 향하는 면모다. 85년생 본의 아니게 처리해야만 하는 안타까움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06, 37		43년생 가볍게 여긴다면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55년생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면 헛돌 뿐이다. 67년생 주관대로 임해도 된다. 79년생 시간의 안배를 잘 해야 실행에 차질이 없다. 91년생 인내가 자욱한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76, 43
	50년생 뿌리 깊은 업보가 현대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이함을 경함하게 되리라. 62년생 명약관화할 것이니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뒤늦게야 깨달을 것이다. 86년생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다. 행운의 숫자 : 51, 23		44년생 순간적으로 달콤한 유혹에 빠진다면 오랫동안 헤어나지 못하리라. 56년생 불합리한 요소는 있는지 점검해 보자. 68년생 체계를 그려치면 행하지 아니함만 못하다. 80년생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푸는 양상이다. 행운의 숫자 : 19, 65
	51년생 전후 사정과 인과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63년생 진력한 만큼에 비례해서 이루어진다. 75년생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재기가 들어올 수다. 87년생 통째로 없애면 표출될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77, 71		45년생 본의 아니게 난처한 입장에 서게 될 수도 있다. 57년생 피규어 소중할 것들이 출몰 세고 있느니라. 69년생 성과는 미미 할지라도 그 의미는 대단히 크다. 81년생 갖추어질 때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이 좋다. 행운의 숫자 : 10, 42
	52년생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64년생 주관대로 임해도 된다. 76년생 경쟁자가 많이 보이므로 미리 선점하지 못한다면 불리할 수밖에 없다. 88년생 광택이 나고 풍채가 갖추어질 길 상이다. 행운의 숫자 : 55, 19		46년생 대단한 성과 올릴 수 있다. 58년생 제한을 받게 되어 상당히 갑갑할 수도 있느니라. 70년생 원칙적인 적용보다 합리적인 융통성이 더 필요한 때이다. 82년생 심하게 치우쳐 있으니 바로 잡아야겠다. 행운의 숫자 : 31, 79
	53년생 탐스러운 육질의 과실이 즐림줄렁 매달려 있다. 65년생 원칙에서 벗어난 예외도 상당수 있을 것이다. 77년생 길이 간직하지 않는다면 없어질 수밖에 없느니라. 89년생 포장을 잘한다면 거저가 있어야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51, 08		47년생 단편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은 판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9년생 한 번만으로는 불만족하므로 여러 번 신경 써야 하는 수고로움이 보인다. 71년생 별 의미가 없다. 83년생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다. 행운의 숫자 : 96, 14